

남원시, 몽골 유학생 유치 시동

울란바토르 초중고 교장단과 협약
전북대 남원캠퍼스와 인력 교류
폐교된 서남대 캠퍼스 리모델링
K-컬처학부 등 매년 유학생 모집



최경식(가운데) 남원시장이 지난 22일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수도 제60년 초·중·고등학교교장을 비롯한 몽골 3개 학교교장과 교육 및 상호 협력 증진을 바탕으로 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폐교한 서남대를 활용한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 설립을 확정된 남원시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인재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22일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수도 제60년 초·중·고등학교교장을 비롯한 몽골 3개 학교교장과 교육 및 상호 협력 증진을 바탕으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전북대 남원캠퍼스로의 몽골 유학생 유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 몽골 학교의 발전 및 산업인력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실행 계획 상 남원캠퍼스는 2027년까지 설립을 완료하게 돼 있다.

남원 글로벌캠퍼스는 폐교 서남대 캠퍼스를 리모델링하고 K-컬처, K-커머스, K-과학기술학부를 두게 된다. 매년 100명씩 유학생을 모집해 총 12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 리모델링 된 서남대 캠퍼스에는 맞춤형 한국어학당을 운영하고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타운을 조성해 지역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전북대는 글로벌대학30 선정과 함께 현재 2000

여명 수준의 유학생을 5000여명까지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다양한 해외 교육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사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인 만큼 긍정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는 전북대 남원캠퍼스가 성

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번 몽골 학교 교장단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력 가능한 해외 교육기관 또는 해외 지자체들을 발굴하고 관계 맺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 정비

대상자 1500명에 안내문...200건 신청 접수

정읍시가 토지지목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건축물대장, 개발행위 준공 등 각종 인허가 서류를 근거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지목 변경 대상 토지를 선정해 토지이동신청서와 안내

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우편물 발송 대상은 각종 인·허가(개발행위, 개간, 건축,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준공으로 토지 형질이 변경됐으나, 소유자의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 하는 토지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 간 협조로 안·허

가 서류를 취합하고 대상지 조사를 시행했다.

현황조사에 결과에 따라 시는 최근 지목변경 대상지 소유자 약 1500명에게 토지이동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고 현재까지 약 20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추후 접수된 토지이동신청서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지목변경)를 실시하고, 정읍지원 등기계에 등기촉탁을 의뢰해 등기촉탁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해 더욱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어르신 무상교통카드 신청하세요

만 70세 이상 다음달부터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남원시가 내년도 어르신 무상교통카드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 신청을 접수한다.

남원시는 올해 7월1일부터 시행 중인 70세 이상 노인층 무상교통카드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 신청을 오는 12월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70세 이상 노인들이 배부받은 교통카드를 관내 대중교통을 무료이용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곧바로 무상교통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대상자 기준이 되는 만 70세는 반드시 출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2024년 연중에 만 70세가 되는 1954년생부터 인정된다.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모두 제출하면 된다.

단 2024년도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는 카드가 발급되더라도 무상교통 이용은 1월1일부터 가능하며 2023년도 기존 대상자들은 발급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 무상교통카드”는 연중 상시 신청·발급이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무상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2023년도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은 만큼 내년도 신규 대상자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하셔서 대중교통 감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선정

4년 연속...내년까지 6개 지역 22억 투입 태양광·지열 설치

정읍시가 4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정읍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시가 최종 선정돼 관련 사업비로 국비 9억9000만원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1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부 지역의 주택·건물 등에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4년 수성동, 장명동, 내장상동, 시기동, 초산동, 연지동 등 6개 동지역 일원에 총 2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은 263개소 789kW, 태양열은 9개소 122.4㎡, 지열은 8개소 140kW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해 에너지자립 기반 확충과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주민이 직접 만든 고창 마을이야기 그림책

독서 동아리 ‘동네 Book 마실’ 진행...명소 감사하며 구성



독서 동아리 ‘글마루 산책’ 참여자들이 고창의 마을 이야기를 주제로한 그림책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마을이야기를 주민들이 직접 만든 그림책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고창군은 글마루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독서 동아리 ‘글마루 산책’이 고창의 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그림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림책은 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공모 지원사업에 선정돼 ‘동네 Book 마실’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독서 동아리 회원들과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윤도장’과 ‘온곡삼사르습지’, ‘동리신재효와 판소리 공원’ 등을 찾아 답사하며 직접 그린 그림 스케치와 이야기를 엮어 그림책으로 완성했다.

이번에 발간된 그림책은 지난 2021년부터 발간해 온 고창마을이야기 1-6권에 이은 7-9권으로

‘우리 고유의 나침반 고창 윤도’, ‘우리 삶을 노래한 판소리와 동리 신재효’, ‘어서오세요, 온곡삼사르습지입니다’ 등 3종이다.

그림책의 삽화와 이야기 구성에는 임진서, 안설화, 정지은, 임민지, 이하람(이상 고창 자유중)과 한설이(고창초2) 양 등 지역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으로 마무리 됐다.

활동에 참여한 임진서 양은 “3년째 참여했는데 고창 윤도는 답사 전까지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 새로 알게돼 좋았고 많은 공부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창마을이야기 그림책은 글마루작은도서관이나 고창군립, 성호도서관에 비치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4개 보훈단체 ‘나라사랑 정신 선양행사’

고창의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보훈단체가 22일 나라사랑 정신 선양행사를 열었다.

4개 단체가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는 호국보훈의 근간이 되는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그 실천을 결의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올해도 지역 내 120여명의 보훈가족이 함께하며 나라사랑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행사의 진행을 맡은 무공수훈자회 성홍제 지회

장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며 “행사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덕석 고창군수도 “보훈가족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예우와 복지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일상생활 속 기억과 존중의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0900100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